



금속캔 시장동향

Market Trend of Metal Can

이성천 /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과장

1. 서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포장에 대한 개념도 기존의 보호성, 편이성, 판촉성에 추가하여 환경친화성이 중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각 국에서는 포장용기의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변화 및 정책에 부합하는 포장용기의 선택이 반영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국내·외의 변화와 관련하여 금속캔의 시장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속캔의 소비량

지난해 금속캔의 판매량은 총 57억관으로 2000년에 비하여 4억관 증가하여, 7.7%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는 경제회복에 따른 소비의 증가로 IMF 이전 소비량에 근접한 것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약 130개의 사용량이다.

재질별로 보면 철캔이 3억관 증가한 47억6천만관으로 7%의 신장율을, 알루미늄캔은 약 1억관 증가한 9억6천만관으로 11%의 신장율을 나타냈다. 이는 경제회복에 따른 맥주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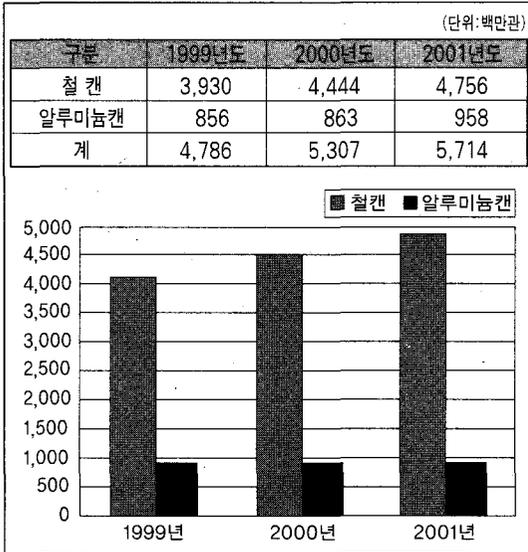
POSCO에서 철캔으로 된 맥주캔을 개발하여 국내에 시범 판매하고 있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로 미비하나 생산원가 절감 등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금속캔의 용도별 소비량

금속캔을 주로 사용하는 종류별로 구성을 살펴보면 음료·주류가 전체 사용량의 약 80%(45억7천만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식품용으로는 10.2%(5억8천만관), 부탄·에어졸용으로는 6.1%(3억5천만관), 기타용으로는 3.7%(2억1천만관)를 차지하고 있다.

금속캔은 보관성, 편이성 등이 우수하여 초

[표 1] 소재별 추이



기에는 식품용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나, 소재의 박판화와 기술개발 등으로 음료·주류용의 사용이 증가하여 타 용기에 비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PET병의 경우 사용량이 증가하여 음료 포장용기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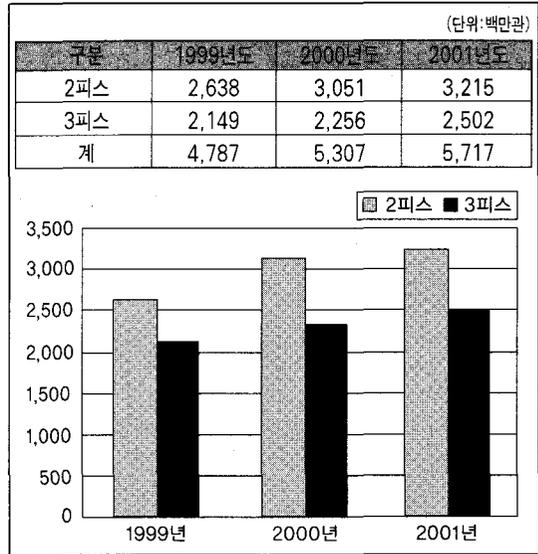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계에서는 디자인 및 기능성을 보강한 냉각 캔, 가열 캔, 신형상 캔 등의 제품 개발을 통하여 음료시장에서 금속캔 사용량이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금속캔의 형태별 소비량

금속캔은 형태별로 2피스와 3피스캔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난해 3피스캔의 신장율이 2피스캔의 신장

[표 2] 형태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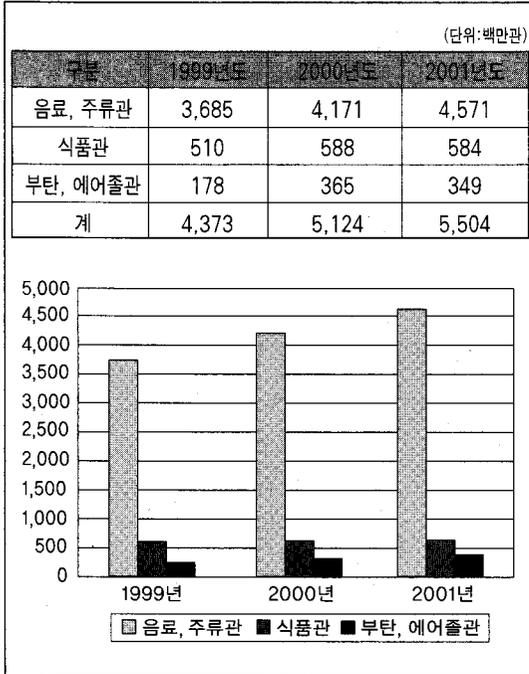
율을 앞서고 있는데 이는 제약용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식품·음료용으로는 전년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피스캔과 3피스캔의 점유율을 보면 2피스의 경우 1999년 55%, 2000년 57%, 2001년 56%로 최근 3년간 큰 차이가 없으나 음료캔의 경우 약 70%가 2피스캔으로 이는 철캔 소재의 박판화에 따른 D&I캔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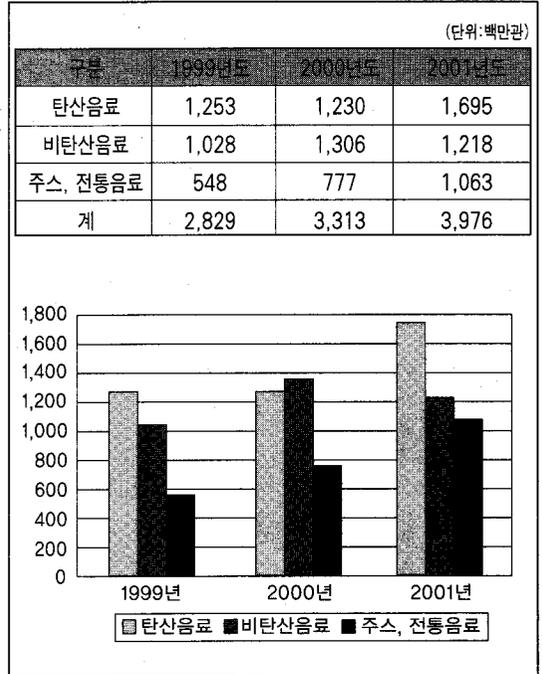
4. 음료별 소비량

캔을 주로 사용하는 음료의 경우 탄산음료와 주스·전통음료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탄산음료의 경우 37.8%가, 주스·전통음료가 36.8%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이다.

[표 3] 종류별 추이



[표 4] 음료별 추이



반면 비탄산 음료의 경우 약 6.7%가 감소하였다.

탄산음료의 경우 경제 회복에 따른 나들이 인파의 증가와 주 고객인 어린이계층의 소비가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스·전통음료의 경우 작년과 같이 매실, 쌀 음료의 선풍적인 인기와 기능성 과즙음료의 판매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

현재 환경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시행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 시행령개정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내년부터는 포장용기에 대한 재활용의 책임과 의무를 생산자가 전적으로 수행하고, 주어진 의무의 불이행시 이에 따른 Penalty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는 포장용기의 선택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환경 친화적 제품을 선택함에 따라 제품의 시장 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포장용기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에서 부터 반영하고, 내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될 용기별 재활용 공제조합을 잘 활용하여 금속캔의 환경친화적인 이점을 부각하고 차별화 하여야 하겠다. ☞